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31.(수) 09:00 / 12. 31.(수) 석간 배포 2025. 12. 30.(화) 14:30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78명 배출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첫 시행, 1급 4명·2급 274명 자격증 발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2급 합격자 278명(1급 4명, 2급 274명)을 최종 발표하였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행동 교정,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 같은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024년 처음 도입하여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금년도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훈련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되었고, 응시자 589명 중 529명(89.8%)이 합격하였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반려동물의 지도 능력과 실전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시자 681명 중 1급 4명, 2급 274명 총 278명(40.8%)이 최종 합격하였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해당 등급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을 면제

** 필기(1급 13명 응시, 12명 합격 / 2급 576, 517), 실기(1급 11명 응시, 4명 합격 / 2급 670, 274)

올해부터 실무경력 조건을 포함한 전문적인 지도 능력을 갖춘 사람을 평가하는 1급 시험을 신설하여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및 훈련지도, 보호자 상담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출했다.

이번에 합격한 인원들은 앞으로 반려동물 교육훈련센터, 동물보호소, 위탁관리 시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게 될 예정이다.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r.kr/pet)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자격시험에서 전문지식과 기본소양을 갖춘 등급별 자격 합격자가 모두 배출된 만큼,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책임자	과 장	홍기옥 (044-201-2651)
		담당자	사무관	김광선 (044-201-2660)